

손흥민, 멀티골에 수비수 퇴장 유도... '만점 활약'

UEFA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 동점·결승골
팀 3-2 승리 일등공신... 경기력 완전히 살아나

손흥민(토트넘)이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상대 수비수 퇴장까지 유도하며 만점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은 1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에서 3-2로 이겼다.

손흥민은 0-1로 뒤진 전반 19분 동료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 드리블 질주 후 오른발 땅볼 슈트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득점 후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짓을 해 최근 사랑한 지안 피에로 벤투로네 체력 코치를 추모했다.

전반 21분 손흥민은 프랑크푸르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드리블 돌파를 하던 중 일본 출신 미드필더 카마다 다이치에게 걸려 넘어졌지만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다.

2-1로 앞선 전반 35분 히사를리송의 헤더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상대 진영을 질주 후 강력한 왼발 슈트를 날렸지만 공은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이 장면 직후 손흥민은 감각적인 추가골을 터뜨렸다. 전반 36분 동료 호이비에르가 측면 돌파 후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있던 손흥민은 왼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2분 손흥민은 3번째 골을 넣을 뻔했다. 동료 세세뇽의 공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쇄도하며 골문 구석을 겨냥한 왼발 슈트를 시도했지만 골키퍼 발에 걸렸다.

3-1로 앞선 채 시작한 후반전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투타를 퇴장시켰다. 후반 14분 손흥민의 돌파를 막으려던 프랑크푸르트 수비수 투타가 손흥민을 잡아 넘어뜨렸고 경고 누적로 퇴장됐다.

이어진 프리킥 기회에서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골문을 위협했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4차전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경기 전반 20분 동점 골을 넣고 있다. 손흥민은 멀티골을 기록하고 상대 수비수 퇴장까지 유도하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AP/뉴시스

지안 골키퍼 트랍이 쳐냈다.

이후에도 토트넘의 역습을 주도한 손흥민은 3-1로 앞선 후반 40분 모우라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났다.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프랑크푸르트에 1골을 허용했지만 3-2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2승1무패 승점 7로 조 선두에 올랐다. 마르세유가 승점 6점으로

2위, 스포르팅이 승점 6점에 골득실에서 뒤진 3위에 자리 잡았다. 프랑크푸르트는 최하위로 쳐졌다.

스카이텔레비전/뉴시스



MBC 아나운서 임현주
엠티 작가 다니엘 튜더와
내년 2월 서울서 결혼

MBC 아나운서 임현주(37사진)가 영국 출신 작가 다니엘 튜더(40)와 결혼한다. 임현주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내년 2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평생 사랑하고 아껴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따뜻한 미소와 마음이 멋진 다니엘 튜더”라며 “본래 사랑에 빠지면 모든 순간이 기적 같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의 연속이었다. 다니엘 책이 연결시켜 줬다”고 썼다.

임현주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나왔다. 부산 KNN(2010), KBS 광주 방송 JTBC(2011)를 거쳐 2013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평일 오전 7시 50분 방송하는 ‘생방송 오늘아침’으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다니엘 튜더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경제·철학을 전공했다. 2010~2013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2015) ‘조선자본주의공화국’(2017) ‘고독한 이방인의 산책’(2021)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

스카이텔레비전/뉴시스



MBC 아나운서 임현주(37)가 영국 출신 작가 다니엘 튜더(40)와 결혼한다. 뉴시스

황선우 2년 연속 5관왕 무산... 남자 혼계영 400m서 팀 실격

부정출발 판정... 한국新도 '없던 일로'
2위로 들어온 경기 선발 어부지리 김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9·강원도청)의 2년 연속 전국체전 5관왕 달성이 불발됐다.

황선우가 마지막 영자로 나선 강원 선발은 13일 울산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혼계영 400m 결승 2조 경기에서 3분35초12의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날 경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주호, 조성재, 문승우, 황선우가 나서 기록한 3분35초26보다 0.14초 빨랐다.

하지만 레이스를 마친 뒤 두 번째 평영 영자가 부정 출발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서 강원 선발은 최종 실격 처리됐다. 한국 신기록 수립도 무산됐다.

혼계영 400m는 4명의 선수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 순서로 100m씩 헤엄쳐 빨리 터치패드를 찍은 순서로 순위를 정하는 종목이다.

강원 선발이 실격 처리되면서 3분39초32를 기록한 경기 선발에게 금메달이 돌아갔다.

인천 선발도 부정 출발 판정으로 실격된 가운데 대구 선발이 3분40초21로 2위, 경북 선발이 3분43초62로 3위가 됐다.

전날까지 출전한 4개 종목에서 모두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4관왕에 오른 황선우는 목표로 했던 2년 연속 5관왕을 달성



황선우(강원선발)가 13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일반부 혼계영 400m 경기에서 팀이 주자 부정출발로 실격이 되자 황당할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하지 못했다.

주종목인 자유형 100m, 200m에서 우승한 황선우는 강원 선발 영자로 나서 계영 400m, 800m 금메달도 수확했지만, 혼계

영 400m에서 실격 탓에 5관왕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체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고등부 경기만 치러진 전국체전

에 나선 황선우는 5관왕에 등극,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품에 안았다.

황선우는 올해 실업팀 입단 후 처음으로 전국체전 일반부에 나섰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